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성령강림절 후 제11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1. 다 찬양하여라 다함께

♣ 공동기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문) 다함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64년 전 우리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민족 분단과 전쟁의 고통 가운데서도 대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으로 평화와 협력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불신은 그대로 남아 있고, 남북 간 분단의 장벽과 대결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새롭게 열어 가시는 하나님! 민족 분단으로 우리 민족이 지난 64년 동안 고통을 겪었고 지금도 서로 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사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잘 이행하게 하여주시어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산가족들의 눈물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 자신이 받은 은사로 통일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 남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남북의 교회들이 분단이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함께 짊어져,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신앙인들이 먼저 마음을 열어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한반도에 더 이상 분열과 전쟁이 없고 새 하늘, 새 땅의 평화를 선취하는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이 이미 계획되어 있음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102. 나라사랑(4)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최문희 선생	II. 장영숙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286(통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다함께
성경봉독	I. 창22:1-19	이성익 학생
		II. 시147:1-11	김정애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그 일 후에	이성운 전도사
		II. 한결같은 사랑으로	김재홍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찬 송	586(통521). 어느 민족 누구게나	다함께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당신의 아픔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분단의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일하고 계신 주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자신의 아픔에만 몰두한 채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라는 고백이 입술만의 고백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오직 마음 하나

해방이 된 때의 모양이 이러하였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이 해방을 주었을까? 준비는 도무지 없는데, 힘을 써 싸워서 얻은 것도 아닌 해방을 민중의 머리 위에 베풀처럼 떨어뜨린 것은 무슨 뜻일까?

아무리 생각이 열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유물주의자라도, 아무리 합리주의자라도, 이것을 현재 주어진 사실로 놓고는,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결론 이외에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되어도 마음에서, 못 되어도 마음에서. 그것밖에 밀천이 없고, 그것밖에 발붙일 곳이 없고, 그것밖에 길이 없다. 예수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하였지만, 그 나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누가 보아서 믿는 것도 아니요, 믿고 싶어 믿는 것도 아니요, 아니 믿고 싶어서 아니 믿는 것도 아니다. 그밖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은가? 마음이 할 수 없어, 알 수 없어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다.

그것을 네가 실재라 할 테면 실재라 해도 좋고, 자연이라 할 테면 자연이라 해도 좋고, 생명이라거나 원리라거나 절대라거나 존재라거나 이름은 아무래도 좋다. 간디의 말대로 무신론이라 해도 좋다. 정신이라면 정신이요, 물질이라면 물질이다. 있다거나 없다거나 간에 아무튼 네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니 가려도 아니 갈 수도 없는 그 무엇이 있지 않나? 믿음으로 가도 가기는 가는 것이고, 의심과 부정으로도 가기는 가는 것이다.

그것이 내 마음이라면 내 마음, 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정말 일은 거기서 나오고 그리 간다. 힘이 들어도 할 수 없고, 불쌍해도 할 수 없고 분해도, 죽기보다 더 어려워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음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잘살다가도 나중 갈 때는 이것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아무리 못나고 못살아도 역시 이것과 해보는 수밖에 없다. 착취를 해도 또 할 수 있고, 해도 죄도 아니 되는 것은 이 내 마음뿐이요, 부러먹어도 부러먹어도 또 부러먹을 수 있고, 부러먹을 수록 좋은 것은 이 내 마음뿐이다. 없던 힘이 나와도 여기서, 없던 지혜가 생긴대도 여기서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아느냐? 몰라서 하는 가정이요, 모르기 때

문에 하나님이에요, 피하지도 버리지도 못한다. 그가 나를 어떻게는 해도 내가 그를 어떻게는 할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하나님이라 한다.

없다면 운명이지, 운명도 아니면 우연이지, 하지만 우연이니까 필연이 아니냐? 어쩔 수 없이 내게 주어진 것이 이 하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자유하는 마음, 자유하는 정신이라는 것이다. 철학자가 객관적으로 자유가 있거나 없거나 그까짓 것은 한인(閑人)의 한담이요, 이 급박한 역사적 현재에서 우리 앞에 놓인 사실은 오직 이것뿐이다 - “이제라도 해야 된다. 이제라도 우리가 하려면 될 수 있다. 마음만 있으면 된다.” 과학자, 유물론자가 있어서 이것 밖에 더 분명한 것을 줄 수 있다면 나도 이 자리에서 유물론자가 된다.

빈소리 하지 말고 공상하지 마라. 우리가 받은 유일한 역사적 유산은 이것뿐이다. 못생겼지만 이것뿐인 우리 마음, 우리 정신, 닦으면 얼마든지 닦이고, 키우기만 하면 곧 크는 마음, 그 대신 없다 하면 아무것도 없다. 5천 년인지 6천 년인지 모르고, 세계 몇 나라, 몇 문명인지 모르나, 그것이 흐르다 흐르다 그 결과 이 가엾은 늙은 갈보 같은 우리에게 가져다준 것은 이것이다. 사실 어느 나라 무슨 문화도 복잡한 듯하지만 들추고 보면 수북한 껍질뿐이요, 마지막에 정말 남는 것은 이것뿐이다- 자유하는 정신. 이렇게 하느라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예측에 벗어나게 하셨다.

우리는 생각하였다 - 우리가 용감하게, 끈기 있게, 겸손하게, 심각하게 이 고난의 훈련을 다 마치는 날 우리에게 영광이 오리라고. 그러나 어리석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에 저 하늘이 땅에서 먼 듯하였다. 해방이 이렇게 뜻밖에 무리하게 무섭게 올 줄은 참 몰랐다. 이제 우리는 “네 자리를 건어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명령을 받은 중풍 병자와 같다. 힘이 없는데 걸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오직 할 일은 그대로 믿고 하는 것뿐이다.

믿음이 본래 있어서 “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그 선언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독립하고서 선언이 아니라, 선언으로 시작이다.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니 믿으면 죽었다. 해방이 된 것 없는데 “너는 해방되었다”고 선언한 것은 해방을 믿으란 말이다. 이제부터 자기 해방을 하란 말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떨어진 해방의 의미다.

햇살의 분별력

감나무 앞에 내리는 햇살은 감나무 잎사귀만하고요
조릿대 앞에 내리는 햇살은 조릿대 잎사귀만하고요

장닭 벼슬을 만지는 햇살은 장닭 벼슬만큼 붉고요
염소 수염을 만지는 햇살은 염소 수염만큼 희고요

여치 날개에 닿으면 햇살은 차르륵 소리를 내고요
잉어 꼬리에 닿으면 햇살은 침버덩 소리를 내고요

거름더미에 뒹구는 햇살은 거름 냄새가 나고요
오줌통에 빠진 햇살은 오줌 냄새가 나고요

겨울에 햇살은 건들건들 놀다 가고요
여름에 햇살은 썩빠지게 일하다 가고요

- 안도현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 영수기 ◇

십일조헌금:

조병무 송양진 곽상준 최경미 김근종 정옥영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김필순 문복순 최현선 박창운 허정윤 손성현 전혜리 박권동

월정헌금:

권미정 김남종 오복순 김종철 고영애 박준규 서지영 이재문 이봉배
 이성범 이윤선 방극숙 이은자 이현순 전영자 김 극

감사헌금:

이유선 이유일 김미희 이봉옥 이자애 이우엘 이나단 김윤숙 박인혁
 박인혜 김필순 김용길 최영혜 황경순 이은자 오승경 전혜리 유초등부
 무명7

생일감사헌금:

박권동

녹색꿈 헌금:

박찬정 김미순 이종현 김순복 허호범 박성실 한지혜 박범희 박창운
 허정윤 이건식 신영신 정영선 무명1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에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쉽	쉽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평화통일기도주일** : 오늘은 남북의 교회가 평화통일을 기원하며 함께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2. **동호회** : 오늘 오후 집회는 동호회로 모입니다. 생태 동호회는 남산 산책로를 걷습니다. 1시 30분에 교회 앞마당에서 출발합니다.
3. **청파장학생** : 2부 예배 후에 담임 목사실에서 장학금을 전달합니다.
4. **결혼** : 정성욱 씨와 김자경 씨의 결혼식이 이번 주 22일(토) 낮 12시에 트레인스 웨딩홀(서울역 구청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5. **신앙실천** : 북한의 굶주리는 어린이들을 위해 식사의 양과 간식을 줄이고 그 비용을 성금으로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다음 주 : 가나안 속)

* 설거지 봉사 : 윤종권 박권동 (다음 주 : 허호범 박성실)

새교우 소개

최영돈 (3남선교회)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성서로 배우는 평화 / 김기석 목사
아름답도다 형제 자매의 사랑!	기도 : 광권희 권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김민주 선생 김재흥 목사	최다미 학생 윤미경 집사

8월	영접위원	한상익 박범희 배근수 강순배 박미영 김금순
	헌금위원	조병무 장혜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